

‘윤석열 탄핵 선고’ 생중계 교실서 본다

전북교육청, 일선 학교에 계기 교육 실시 지침 안내
도내 학교에 공문 보내… “계기 교육 필요성 커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3일 도내 모든 학교에 계기 교육 실시 지침을 안내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문의가 많아 계기 교육 실시 안내 공

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계기 교육 실시 지침을 보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학교는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생이 질문과

탐구, 토론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사회문제에 관심이 커진 만큼 계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계기 교육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글로벌30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이 3일 우석대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유레카 초청 강의를 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 우석대 이흥기 부총장 유레카 초청 강의

우석대학교 글로벌30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이 3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유레카 초청 강의를 펼쳤다. 이에 따르면 이날 강의에서 이 부총장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을 제시하며, 수소경제의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청정수소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흥기 부총장은 “수소경제는 탄소 중립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수소모빌리티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우리나라 역시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한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은 한양

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우석대학교에는 1994년 부임해 2008년부터 산업지원부가 지원하는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를 총괄하며 한국 수소 산업의 설계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 연료전지 기술의 표준화를 총괄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연료전지기술위원회(TC 105) 의장직도 수행하고 있으며, 수소기술 표준포럼 위원장과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회장, 해외인증 지원위원회 위원장, 전주수소시범도시 자문위원장 등을 함께 맡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내 다문화 학생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화

전북교육청, 이달부터 신청 학교 방문해 일대일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매년 중도 입국 등으로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한국어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교육 지원을 받은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어능력 향상으로 학급 내에서 교우관계, 수업 태도 등의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실제, 지난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실시 결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의 교육성취도가 평균 5.1점에서 8.9점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유·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3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기 중 입학하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도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교육 대상이 확대되면서 강사 인력도 130여 명에서 160여 명으로 늘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한국어교육 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강, 전북 다문화교육정책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방침 안내, 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한국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념기반 탐구수업 공감대 확산

전북교육청, 교사 대상 수업혁신 지원단 운영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전주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유향검출에서 수업혁신 지원단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사 2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의 수업혁신 핵심 브랜드인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연구·개발·적용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단 교사들의 수업 중심

문화 중심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념기반 탐구수업’은 교사의 핵심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탐구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전북교육청의 수업혁신 방향이다. 2025년 수업혁신지원단은 19개 교과 분과와 5개의 지역분과 등 총 24개 분

과로 나눠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자료 개발, 수업 나눔 활동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실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Q&A로 풀어나가는 수업혁신 지원단이라는 형식으로 풀네 교사들의 호응과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 내용은 △개념기반 탐구수업, 너는 누구나 △단원 설계는 왜 필요할까 △개기탐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1년간 분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업나눔의 A TO Z 등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환경공학과, 세계적 연구역량 입증

QS 세계대학평가 2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 카이스트 등과 어깨 나란히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가 2025년 QS 세계대학평가 세부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지방 거점국립대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QS 세계대학평가는 세계 1,74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및 기업계 평판, 연구자의 생산성과 영향력 등을 나타내는 H-index 피인용 수, 논문당 인용 수, 교수당 학생 비율, 국제 공동연구 실적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하고 있다. 이에 전북대 환경공학과는 2022년 처음으로 QS 세계대학평가 순위에 진입(351~400위)한 이후 꾸준한 상

승세를 기록하며 올해 200위권 초반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방 거점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로,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연구의 질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H-index 피인용 수와 논문당 피인용 수에서 각각 68.7점과 85.5점을 기록해 KAIST(68.7점, 88.4점)와 POSTECH(65.1점, 85.6점)에 버금가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북대 환경공학과 연구역량과 학문적 영향력이 이미 세계적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는 BK21 Four 사업, 예

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첨단 연구장비와 인프라 확충,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확대 등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김용현 전공주임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환경공학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미래 핵심 분야에서 세계적 명문 학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형 CBT 평가시스템 개발

전북교육청, 초 3~6학년 대상...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 평가 바탕

온라인 평가 시스템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형 CBT 평가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기존 지필평가와 달리 실제적인 맥락을 기반으로 한 평가 문항을 통해 학생의 성취도뿐만 아니라 교과역량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멀티미디어 자료, 상호작용성이 높은 기능 등을 포함한 문항을 제공해 학생들의 평가 참여 의욕과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우선, 1학기에 50개 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2학기에는 참여 학교 규모를 3~6학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평가 과목도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로 늘어난다. 김운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습 성취 수준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형 CBT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과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산불 피해 지원
성금모금... 4일부터 1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최근 잇달아 대형 산불로 교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4~10일까지 전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성금 모금은 지정기탁자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구호 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교직원들의 재난구호 휴가 사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산불 피해를 입은 학생과 이재민을 돕는 데 전북교육가족 모두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민 대상
응급처치 실습 무료교육

기도폐쇄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주내용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응급처치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북대 한옥 신전문 옆 별채인 심천학당에서 진행된다. 정기 교육은 상반기 동안 총 29회에 걸쳐 진행되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이뤄진다. 교육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해당 시간에 심천학당을 방문하면 즉시 참여 가능하다. 실습교육의 주요 내용은 △기도폐쇄시 응급처치 방법 △심폐소생술(CPR)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응급상황 위주로 진행된다. 한편, 전북대는 캠퍼스 각 건물 1층에 자동심장충격기 89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월 1회 점검하고, 간단한 사용법을 게시해 비상시 누구나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대 안전보건관리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일 대학본관에서 양현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위해 협력

전주대, 양현고와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일 대학본관에서 양현고등학교(교장 이원형)와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박진배 총장, 이근호 입학처장, 곽이구 기획처장을 비롯해 양현고 이원형 교장, 최현숙 교감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 플

랜을 이행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협력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협력 및 학생 진학 역량 강화 협력 △연구 장비 공동 활용 및 지식 정보 및 인력 상호 교류 등이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 내 우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양현고 학생들이 지역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력 신장’

전주교육지원청, 권역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운영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기)은 관내 학부모 300여 명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연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주학력지원센터에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되며, 특강 이후 가정에서 실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다시 나누고 공유하는 ‘학부모 교육’과 연계·운영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의 학습 코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반영하듯 연수 신청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연수는 전문 강사진 강의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 스타일과 성향에 맞는 맞춤형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다. 김경기 교육장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더 많은 학부모가 참여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